

내 용 : 『노동리뷰』 3월호 - 이슈분석

■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김정한 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로서, 다른 조직형태-산별노조, 일반노조 등-에 비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조직형태
-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회사의존형 노조재정
 -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2.7%에 지나지 않지만 조합원수 비중은 61.6% 점유, 조합원수 100인 미만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66.5%, 전체 조합원수의 8.7%
 - 전임자 임금은 물론 노조사무실, 비품집기, 차량편의 등은 물론 출장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원
-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에서 현격한 격차 초래, 대공장 노조의 도덕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조합원규모가 클수록 예산 운영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노조집행부가 불신임 당하거나 자진 사퇴한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높음.
- 기업별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여 노동운동의 힘의 약화와 노동운동의 분열 초래
- 기업별 노조 하에서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사무직과의 갈등 야기

문의처 : 김정한 연구위원 Tel: 783-6083 E-mail : junghan@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담당자	김정한 연구위원
전화	02) 783-6083

- 노조의 조직원리면에서 볼 때 기업별 노조는 다른 조직형태, 산별노조, 일반노조에 비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조직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형성되고 고착화하여 온 조직형태임.
-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파편화
 -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2.7%에 지나지 않지만 조합원수 비중은 61.6% 점유,
 - 조합원수 100인 미만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66.5%, 전체 조합원수의 8.7%
 - ※ 노동조합 1개소당 평균 조합원수는 247.7명
-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파편화는 회사의존형 노조재정 초래
 - 우리나라 노조는 전임자 임금은 물론 노조 사무실, 비품집기, 차량편의 등은 물론 출장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 문제 야기
 - 2007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노조 조직규모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높음.

<표 1> 조합원규모별 노조사무집기 등 비품 조달방식

(단위: 개소, %)

	노조예산에서 총당	회사에서 일부 보조	전적으로 회사 제공
50인 미만	21(32.3)	30(46.2)	14(21.5)
50~99인	22(25.3)	38(43.7)	27(31.0)
100~499인	64(21.5)	149(50.2)	84(28.3)
500~999인	12(18.2)	34(51.5)	20(30.3)
1,000인 이상	11(20.8)	30(56.6)	12(22.6)
전체	130(22.9)	281(49.5)	157(27.6)

자료: 김정한(2002.1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116쪽.

<표 2> 조합원규모별 노조간부의 출장비 조달방법

(단위: 개소, %)

	노조예산에서 총당	회사에서 일부 보조	전적으로 회사 제공
50인 미만	51(78.5)	11(16.9)	3(4.6)
50~99인	69(79.3)	15(17.2)	3(3.5)
100~499인	216(72.5)	66(22.1)	16(5.4)
500~999인	49(74.2)	15(22.7)	2(3.0)
1,000인 이상	43(81.1)	9(17.0)	1(1.9)
전체	428(75.2)	116(20.4)	25(4.4)

자료: 김정환(2002.1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116쪽.

○ 기업별 노조로 인한 노조규모의 양극화는 노동운동의 분열 초래

- 기업별 노조는 산별 노조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에서 현격한 격차 초래
- 기업규모별 근로조건 등에서의 현격한 격차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구조조정으로 심리적 계약관계가 붕괴되어 장기결제형 노사관계 대신 단기결제형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잡으면서 대공장노조의 이기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노동조합규모의 양극화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맞물려 대공장노조의 도덕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기아자동차 사태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규모가 클수록 예산 운영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노조집행부가 불신임 당하거나 자진 사퇴한 경험의 빈도는 비중이 높음.

<표 3> 조합원규모별 예산운용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불신임 경험

(단위: 개소, %)

	불신임당하거나 자진사퇴한 경험이 있다	불신임이나 자진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직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불신임당한 경험이 없다
50인 미만	3(4.6)	1(1.5)	61(93.9)
50~99인	8(9.3)	2(2.3)	76(88.4)
100~499인	25(8.4)	14(4.7)	258(86.9)
500~999인	7(10.6)	2(3.0)	57(86.4)
1,000인 이상	6(11.3)	6(11.3)	41(77.4)
전체	49(8.6)	25(4.4)	493(87.0)

자료: 김정환(2002.1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122쪽.

○ 기업별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여 노동운동의 힘의 약화와 노동운동의 분열 초래

- 200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 이른바 비정규직의 조합원 비중은 각각 1.5%와 0.4%로 상용직의 22.5%에 미치지 못함.
- 정규직으로 구성된 기존 노조는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장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나머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하나의 기업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혼재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노동운동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노조가입 현황

(단위 : 천명, %)

		무노조 사업체	유노조 사업체		
			가입대상 배제	자발적 미가입	노동조합원
2003년 8월	전 체	11,022 (77.9)	786 (5.6)	727 (5.1)	1,615 (11.4)
	상용근로자	4,526 (62.6)	511 (7.1)	661 (9.1)	1,538 (21.3)
	임시근로자	4,515 (92.7)	230 (4.7)	58 (1.2)	69 (1.4)
	일용근로자	1,981 (97.1)	44 (2.2)	8 (0.4)	8 (0.4)
2004년 8월	전 체	11,143 (76.4)	918 (6.3)	708 (4.9)	1,815 (12.4)
	상용근로자	4,730 (61.4)	1,126 (7.7)	1,212 (8.3)	3,286 (22.5)
	임시근로자	4,430 (92.0)	757 (5.2)	186 (1.3)	218 (1.5)
	일용근로자	1,983 (95.7)	516 (3.5)	48 (0.3)	58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 기업별 노조 하에서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사무직과의 갈등 야기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단체협약에 생산직은 유니온 슝제, 사무직의 경우에는 대리 이하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오픈슝제를 채택하고 있음.
- 사무관리직의 경우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생산직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예년과는 달리 생산직과는 별도로 사무직 노조를 결성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단체협약이나 노조 규약에 사무관리직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사무관리직을 조합원의 범위로 한 경우에도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무직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직종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